

 해양수산부		공동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	
배포일시	2022.2.22.(화)	담당부서	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	
담당자	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팀장 조창연, 사무관 김현준(02-2100-7859, 7664)			
담당자	환경부 국제협력과 과장 송용권, 사무관 오석주(044-201-6560, 6573)			
담당자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송종준, 사무관 양지영(044-200-5280, 5284)			

「제24차 한-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」 개최 결과

-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2.22.(화) 주어 귀메이(Zhou Guomei)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정부와 화상으로 「제24차 한-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」를 개최하고, 한-중 양자·지역·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.
- 동 회의는 △미세먼지 등 대기오염, △해양폐기물 관리 등 해양 환경 등을 주제로 하여 1993년 「한-중 환경협력협정」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, 외교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.
- 우리측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, 국내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조하였다.
- 한·중 양국은 그간 동 공동위 및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(NEACAP)* 등 양·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를 강화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(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)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
역내 유일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(NEASPEC) 차원의 대기오염
대응 협력체로,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방안 모색

- 이러한 차원에서 제23차 공동위를 통해 채택된 한·중 대기질 예보
정보 및 기술교류 사업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, 동 사업을 통한
상호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대응력을
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, 양국은 해양쓰레기 관리 및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
대응 등의 해양분야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- 한·중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(NOWPAP)*을 통해 역내
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,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내 현안에
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뜻을 모았다.

* 한·중·일·러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
발전을 위한 유엔환경계획(UNEP) 지역해 사업

- 또한, 우리측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한-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
연구가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
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- 아울러, 양국은 해양생태계 자원의 탄소흡수·저장능력을 온실가스
감축원으로 개발·활용하는 블루카본* 개발 사업을 신규 협력사업
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.

*** 블루카본이란?**

☞ 갯벌, 잘피, 염색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하고 있는 탄소
cf.) 산림에 저장되는 탄소는 그린카본 / 석탄 등 화석에 포함된 탄소를 블랙카본이라 함

□ 금번 환경협력 공동위를 통해 한·중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
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
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
나가기로 하였다.

- 한-중 양국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25차 환경협력 공동 위원회를 개최기로 합의하였다. 끝.